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8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2%	18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과 <보기>의 이론 비교
오답률 4위	34%	25번	(문학 : 현대시) - 맥락을 기반으로 한 시구 의미 추론
오답률 3위	48%	29번	(독서 : 인문)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55%	40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57%	41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수필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 현대소설 : 이문구, '우리 동네 이 씨'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과학 지문 : 힘의 상호작용에 대한 페러데이의 이론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2%) 예측] : 독서-사회 18번 문항

[지문 내용과 <보기>의 이론 비교]

18.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고프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 타인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자아 이미지인 공안(公顔)을 가지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대면적 상호 작용에서 우리는 타인의 공안을 '존대'하고 자신의 공안이 인정받을 만한 '처신'을 한다. 개인의 자아는 '존대'와 '처신'이라는 상호 작용의 의례가 준수되는 과정에서 공안과의 간극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고도 소비 사회에서는 일상생활마저 대중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현란한 광고 이미지에 의해 포획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이미지에 따라 공안을 형성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존재하는 육체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광고 이미지에 완전히 복속되어 형성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반(半)자율적인 특성을 가진다.

[Killer-Point]

- ① 보드리야르는 고도 소비 사회에서도 고프먼이 말하는 자아의 반자율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기 드보르는 고도 소비 사회에서도 고프먼이 말하는 공안이 각자의 진정한 욕구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겠군.
- ③ 고프먼은 인간이란 시뮬라크르의 영향을 받아 겉으로 드러낸 자아가 전부인 존재라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고프먼은 고도 산업 사회 이전에는 구체적인 대면적 상호 작용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었다는 기 드보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보드리야르는 고도 소비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아가 광고 이미지에 완전히 복속되어 형성되지 않는다는 고프먼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정답 : ③]

이론 비교형 <보기> 문제를 읽을 때는 <보기>를 집중력 있게 읽어줄수록 좋다. 처음 읽을 때 지문의 이론(들)과의 공/차 정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답을 빠르게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문에서는 '기 드보르'와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정리는 다 됐겠지만, 그래도 <보기> 내용도 정리할 겸 간단하게 묶어서 정리해보자. 항상 '공/차 정리'의 시작은 '기준점'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다.

기준점	기 드보르	보드리야르	고프먼
내적 자아	있음	없음	있음
외적 자아	있음	있음	공안
원본	진짜 현실	없음	-
이미지	스펙터클	시뮬라르크	광고 이미지

4문단을 통해 보드리야르는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자아'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프먼은 우리의 '자아'가 '개인의 자아'(맥락상 내적 자아)와 '공안'(외적 자아) 사이의 간극이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은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모두 '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고프먼은 겉으로 드러낸 자아가 전부인 존재라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사례] - 2020년도 4월 학력평가

철학자 악셀 호네프트는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병리적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네프트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적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 여기서 목적적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을 말한다. 즉 목적적 나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이다. 그리고 주격 나는 목적적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으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주격 나는 목적적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할 때는,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적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적적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호네프트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된다. 그래서 개인은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면, 해당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된다.

호네프트는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는 원초적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은 파괴된다. 두 번째는 권리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존중감은 파괴된다.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로, 개인이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인 자부심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부심은 파괴된다.

호네프트는 이처럼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 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질서란 개인의 자아를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이다. 호네프트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질서에 주장하면 개인은 기존 인정질서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인정투쟁이라고 명명한다.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호네프트는 인정투쟁이 현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5. 밑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흡스는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쟁은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① 호네프는 ㉠을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로, 흡스는 ㉡을 불안이 해소된 상태로 보고 있군.
- ② 호네프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에게 굴복하게 되고, 흡스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와 공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③ 호네프는 ㉠의 결과 개인이 인정질서를 확장한다고, 흡스는 ㉡의 결과 개인이 사회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④ 호네프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흡스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⑤ 호네프는 ㉠을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흡스는 ㉡을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군.

[정답 : ③]

[오답률 4위(34%) 예측] : 문학-현대시 25번 문항

[맥락을 기반으로 한 시구 의미 추론]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기나긴'은 일과 시간에 대한 '나'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지나간 하루에 대한 '나'의 아쉬움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의 '텅 빈'은 아무도 없는 공간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데서 기인한 '나'의 공허한 내면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③ ㉢의 '어디선가'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알 수 없다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시상이 전환되는 계기가 형성된다.
- ④ ㉣의 '엿들으며'는 은밀하게 다가오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낯선 존재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적막'은 '나'가 머무는 장소에 떠도는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으로, 홀로 남겨진 듯한 '나'의 외로운 처지가 이를 통해 강조된다.

[정답 : ㉤]

[Killer-Point]

정답 선지의 판단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5번 선지까지 내려갈 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1~3번 선지의 판단이 까다롭다. (따라서 해설도 1~3번 선지 위주)

먼저 이런 '긴 선지'들에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 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선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끊어놓고 하나씩 판단해보자.

① '기나긴'이라는 표현은 '나'의 '주관적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즉 앞부분은 맞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노역'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지나간 하루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노역'이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하루가 끝났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노역'이 반어적 표현으로 쓰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시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화자가 자신의 '현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도 없다.

② '텅 빈'은 아무도 없는 공간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의 판단에서는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 선지 표현을 보자. 화자의 '공허함'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데서 기인'하였다면,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공허한 심리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끌고 온 이미지이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즉 '나'의 '공허한 내면'이 나타나는 것은 맞으나 이 공허한 내면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공허'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이지 실제 공간으로서의 공허가 아니며, 아이들은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③ 1~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선지 앞부분은 맞다. '어디선가'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 시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상의 전환은 화자의 인식, 정서, 태도 혹은 시적 대상의 명확한 변화가 나타나야 맞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등의 정서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태도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오답률 3위(약 48%) 예측] : 독서-인문 29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29.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는 개연성이 낮은 유비 논증으로, (나)는 개연성이 높은 유비 논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로 (A) .

(가)

전제 1: 원자에서 전자들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태양계에서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전제 2: 전자들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도약한다.

결론: 행성들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도약할 수 있다.

(나)

전제 1: 태양 빛을 받는 지구의 표면을 달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그린 것처럼 그린 그림 I과, 태양 빛을 받는 달의 표면을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여 그린 그림 II에서 빛과 그림자의 무늬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제 2: 지구에 산과 분화구가 없다면 그림 I에서 볼 수 있는 빛과 그림자의 무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광학 이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결론: 달에도 산과 분화구가 있을 것이다.

[Killer-Point]

- ① (가)의 경우는 원자와 태양계, 전자와 행성 간의 표면적 유사성만 존재하므로 결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② (가)의 경우는 두 영역의 유사점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추가적 특성을 결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③ (나)의 경우는 그림 I과 그림 II의 관계가 지구와 달의 관계와 명확한 관계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④ (나)의 경우는 산과 분화구의 존재와 그림 I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의 무늬 간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⑤ (나)의 경우는 자료 영역의 추가적 특성뿐만 아니라 목표 영역의 추가적 특성도 지구상에서 망원경을 통해 관찰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답 : ④]

<보기>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자.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A)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것이고, (가)와 (나) 둘 중 누구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가)에 대한 설명은 개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나)에 대한 설명은 개연성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

(나)의 '전제1'과 '결론'을 먼저 정리해보자.

[그림 I] 달에서 지구를 그린 것 ⇨ 빛과 그림자의 무늬 나타남 ⇨ 지구 : 산과 분화구 존재

[그림 II] 지구에서 달을 그린 것 ⇨ 빛과 그림자의 무늬 나타남 ⇨ 달 : 산과 분화구 존재?

그리고 '전제 2'의 내용도 놓치면 안 된다. '전제 2'의 내용은 '빛과 그림자의 무늬'라는 자료 영역의 속성과 '산과 분화구'라는 추가적 특성 간의 과학적 연관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자료 영역의 어떤 속성과 추가적 특성 간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관계'가 있고 이 속성과 유사한 속성(빛과 그림자의 무늬)이 목표 영역에 있을 때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과 분화구의 존재, 빛과 그림자의 무늬 간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관계가 있다는 전제 2의 내용은 (나)의 개연성이 높은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7학년도 6월 모평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21. 밑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정답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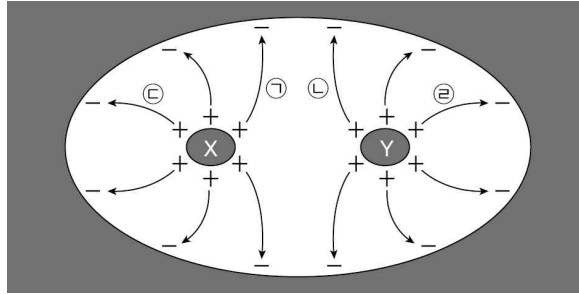
[오답률 2위(약 55%) 예측] : 독서-과학 40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0. 윗글의 ㉔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공기만 담긴 밀폐된 공간에 아래의 그림처럼 (+) 전하를 띤 대전체 X와 Y가 있다.



- ① X와 Y는 서로를 직접 잡아당기지 않는다.
- ② 전기력선 ㉓과 ㉔은 서로를 밀어낸다.
- ③ 전기력선 ㉕은 도체 속을 통과할 수 있다.
- ④ 전기력선 ㉖ 내부의 인접한 입자 간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 ⑤ 전기력선 ㉓, ㉔, ㉕, ㉖은 분극된 공기 입자들의 연쇄를 나타낸다.

[Killer-Point]

[정답 : ③]

㉔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지문에서 페러데이의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정전기 유도를 전기적 긴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론과 역선의 실존을 전제하는 이론. 그리고 ㉔는 둘 중 전자에 해당한다.

㉔에 따르면 대전체와 도체 사이에 일련의 분극된 입자들이 형성되고, 이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의 말단에 있는 것이 전하이다. 지문에 있는 <그림 1>의 '대전체 A'와 '도체 B'의 사이를 보면 A에는 (+) 전하가 붙어 있고, B에는 (-) 전하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㉔에서는 (+) 전하와 (-) 전하를 '전기력선'의 시작점과 끝점으로 본다.

또한 이렇게 전기력선이 형성되는 것을 ㉔에서는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는 물체이다. 전기력선이 형성되는 것이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기력선이 형성, 즉 통과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문에서 A와 B 사이에 도체가 꽂히도록 삽입되면 전기적 긴장이 풀리면서 전기력선과 전하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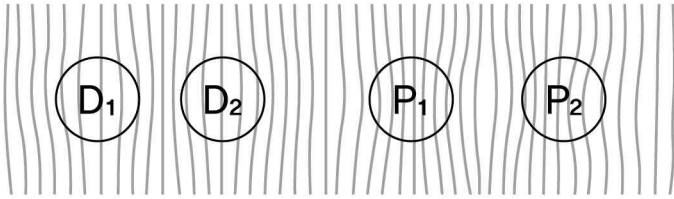
[오답률 1위(약 57%) 예측] : 독서-과학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1. 밑글에 나타난 패러데이의 관점에 따라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

세로 방향의 일정한 자기력선이 지나는 공간에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반자성체와 자성체를 놓았다. 단, D₁과 D₂는 반자성체이고, P₁과 P₂는 자성체이다.



- ① P₁과 P₂는 서로 가까워지겠군.
- ② D₁과 D₂는 서로 직접 잡아당기겠군.
- ③ D₁은 왼쪽으로, P₂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군.
- ④ P₁의 왼쪽은 P₁의 오른쪽보다 자기력선이 희박하겠군.
- ⑤ D₁과 D₂ 사이는 P₁과 P₂ 사이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겠군.

[Killer-Point]

[정답 : ①]

두 가지만 명심하자.

- (1) 생긴 것과 다르게 어렵지 않다.
- (2) <보기>의 그림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지문에 따르면 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끌어당기고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밀어낸다.

또한 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은 쪽으로 움직이고,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반자성체인 D₁은 왼쪽의 밀도보다 오른쪽의 밀도가 더 높다. D₂에서 자기력선을 D₁ 쪽으로 밀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₁은 밀도가 낮은 왼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또 다른 반자성체인 D₂는 D₁에서 자기력선을 D₂ 쪽으로 밀어주므로 왼쪽의 밀도가 오른쪽의 밀도보다 더 높다. 따라서 D₂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자성체인 P₁은 왼쪽의 밀도가 오른쪽의 밀도보다 높다. D₂에서 P₁ 쪽으로 자기력선을 밀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P₁은 왼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P₂는 오른쪽의 밀도가 왼쪽의 밀도보다 높다. P₁에서 자기력선을 당겨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P₂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1. 교체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받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국], 밖[밖], 부엌[부엌]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남, 날, 낫, 낫, 낫, 낫, 낫 → [남]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ㅃ	ㅂ	입, 잎 → [입]
ㅇ	ㅇ	강[강]

[더 알아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실현 양상

- ①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늪 앞[느밭], 발 아래[바다래], 부엌 안[부어간] 꽃 위[꼬뒤]
- ②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앞말의 자음을 뒤 음절 첫소리로 그대로 옮겨 발음한다. ㉡ 곁에[거테], 꽃을[꼬츨]
- ③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겹받침 중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단, 겹받침이 ‘ㄱ, ㄴ, ㅅ’인 경우,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ㅆ]으로 발음한다. ㉢ 닭을[달글], 삶아[살마], 값을[갑쓸], 외곶으로[외곶쓰로]

(2)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3) 된소리되기(교체)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뽕], 꽃병 → [꽃뽕], 값도 → [갑또]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ㅁ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ㅁ'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ㅁ'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가'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가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사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ㄸ, ㅆ, ㅉ]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2. 탈락

(1)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ㄲ, ㅆ'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ㄹ, ㅂ, ㄷ, ㄹ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ㄹ, ㅂ, ㄷ, ㄹ]	넋 → [넉], 여덟 → [여덜], 값 → [갑], 닭 → [덕],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ㄹ, ㄷ, ㄹ, ㅂ, ㅂ, ㄹ, ㄷ	자음 앞	[ㄴ, ㄴ, ㄹ, ㄹ, ㅂ, ㅂ, ㅂ]	얇고 → [안꼬], 많네 → [만:네], 활고 → [할꼬], 얇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웁다 → [읍:따] 단, 'ㄹ, ㄷ'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ㅂ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ㅂ → [ㅂ] (뺏-/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뺏고 → [뺏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뺏’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뺏’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뺏’은 ‘ㅂ’이 남는다.

3. 축약

(1)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꼬], 앉던 → [안똥], 실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망형 → [마똥], 값 흥정 → [가똥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택지 해설]

13.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예지가 ‘흙이’를 [흐기]라고 발음한 것은 먼저 ‘흙’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 ‘ㄹ’을 탈락시켜 ‘흑이’로 만든 후 연음을 한 결과야. 하지만 종성 자음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발음이 틀린 거야. 그럼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흙이[흙기]’에서 앞 말의 종성은 ‘ㄹ’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이며, 그 뒤에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자 형식형태소인 ‘이’가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자음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군 중 뒤의 하나만 바로 뒤로 넘기는 연음이 일어나. 그 결과 ‘흙이’는 [흙기]라고 발음 돼.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예지가 ‘겨들’을 [겨출]이라고 발음한 것은 ‘ㄹ’을 ‘ㄷ’로 바꾸어 발음한 거야. 이는 구개음화라고 착각하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많아. 구개음화는 윗잇몸소리 ‘ㄷ, ㄹ’ 뒤에 모음 ‘ㅣ’가 올 때 선입천장소리 ‘ㄷ, ㄹ’로 바뀌는 거야. 하지만 ‘결을’은 ‘ㄹ’이 모음 ‘ㅡ’를 만나지. 이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대신 종성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가 온 것으로 바로 연음해서 [겨들]이라고 발음해야 해.
- ③을 살펴보자. 예지가 ‘꽃에’를 [꼬테]라고 발음한 것은 ‘ㄷ’을 ‘ㄹ’로 바꾸어 발음한 거야. 한편 구개음화는 윗잇몸소리 ‘ㄷ, ㄹ’ 뒤에 모음 ‘ㅣ’가 올 때 선입천장소리 ‘ㄷ, ㄹ’로 바뀌는 거야. 하지만 ‘꽃에’는 구개음화와 상관이 없어. ‘꽃에’에서는 종성의 ‘ㄷ’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에’가 만나는 것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과 달라. 대신 종성 뒤에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니까 바로 연음해서 [꼬체]라고 발음해야 해.
- ④를 살펴보자. ‘값이’를 [가비]라고 발음한 것은 먼저 ‘값’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 ‘ㅅ’을 탈락시켜 ‘갑이’로 만든 후 연음한 결과야. 하지만 종성 자음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발음이 틀린 거야. 종성 자음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바로 연음이 일어나. 그럼 ‘갑시’가 되겠지. 이렇게 연음이 일어났더니 앞 음절 종성의 안울림소리 ‘ㅂ’과 뒤 음절 초성의 안울림소리 ‘ㅅ’이 만나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그 결과, 올바른 발음은 [갑씨]가 돼.

⑤를 살펴보자. ‘부엌에’를 [부어게]라고 발음한 것은 ‘부엌’의 음절 중성의 ‘ㄱ’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ㄱ’으로 바꾼 후, 연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엌에’는 음절 중성의 ‘ㄱ’ 다음에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에’가 왔어. 그럼 바로 연음해서 [부어게]라고 발음해야지. 참고로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와 ‘ㅎ’가 만나서 ‘ㅋ, ㅌ, ㅍ, ㅊ’로 축약되는 현상이야. ‘부엌에’에서는 이런 음운 환경이 보이지 않고, ‘ㄱ’은 이미 거센소리이니 이 경우 거센소리되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조사]

1. 격 조사(격 조사는 암기하자.)

- 개념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조사
- 종류
 - ① 주격 조사 : 이/가, 께서(높임), 에서(단체)
 - ② 서술격 조사 : 이다(‘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활용)
 - ③ 목적격 조사 : 을/를
 - ④ 보격 조사 : 이/가(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앞에 쓰여 의미를 보충)
 - ⑤ 관형격 조사 : 의
 - ⑥ 부사격 조사 : 예, 에서, 에게, (으)로, 하고, 와 등
 - ⑦ 호격 조사 : 아/야, (이)여, (이)시여

2. 접속조사

- 개념 :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
- 종류 : 와/과, 이랑 등 예) 승모와 영희가 밥을 먹는다 / 사과랑 배 주세요.

3. 보조사

- 개념 :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 종류
 - ① 성분 보조사 : 은/는, 만, 도, 까지, (이)나, (이)나마, 대로, 마저, (이)야, (이)야말로, 조차 등
 - ‘은/는’ 예) 나는 국어는 잘하지만, 과학은 못한다.(대조)
 - ‘만’ 예) 너만 와라.(한정)
 - ‘도’ 예) 너도 숙제를 안 해왔니?(포함)
 - ② 종결 보조사 : 마는, 그러, 그래
 - 예) 사고 싶다마는. / 봄이 돌아왔네그러. / 좋아 보이는구먼그래.
 - ③ 통용 보조사 : 요
 - 예) 제가요, 어제요, 학교예요, 가지 않았는데요.
- 특성
 - ① 생략하면 보조사가 지닌 특별한 뜻이 사라짐 예) 나는 밥을 먹었다. / 나는 밥만 먹었다.
 - ② 주격, 목적격, 부사격 등 여러 자리에 두루 쓰임.
 - ③ 보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어미, 다른 격 조사와도 결합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임.

[선택지 해설]

14.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㉔의 ‘시험도 끝났으니까 우리 영화나 보자.’에서 ‘영화나’는 분석하면 ‘영화(명사) + 나(보조사)’야. 그런데 이때 ‘영화나’는 ‘영화를’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해. 본래 ‘보다’는 ‘-가 -를 보다’라는 문장구조를 가지며,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타동사야. 즉 본래 ‘영화나’에서 ‘나’에는 본래 목적격조사 ‘를’이 오는 자리라는 거지. 이를 통해 우리는 ‘영화나’가 보조사 ‘나’를 가지지만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영화나’가 명사가 보조사와 결합해 목적으로 쓰였다는 선지는 맞아.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그녀는 예전부터 음악을 좋아했다.’에서 ‘예전부터’를 보면 ‘예전’이라는 명사 뒤에 ‘부터’가 사용되어 시간을 보여주는 부사어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부터’는 부사격조사가 아니야.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야. 즉 ‘예전부터’는 명사 뒤에 보조사가 결합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해.

②를 살펴보자. ‘두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에서 ‘두’는 문장에서 바로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이때 ‘두’는 본래부터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야. 수 관형사가 문장에서 체언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에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는 선지는 틀렸어. 참고로, 수사의 경우 ‘나는 사과 하나를 샀다.’에서 ‘하나를’과 같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해.

③을 살펴보자. ‘영주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했다.’에서 ‘동창과’는 부사어는 맞아. 하지만 ‘과’의 앞뒤로 체언이 있지는 않아. ‘과’가 접속 조사로 사용되려면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처럼 ‘과’가 동등하게 연결하는 체언이 앞뒤로 둘 이상 있어야 해. 하지만, ‘영주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했다.’에서 ‘과’는 앞뒤 체언을 연결하고 있지 않아. 이때 ‘과’는 ‘동반’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격 조사’야. 그러므로 명사가 접속 조사와 결합해 부사어로 쓰였다는 선지는 틀렸어.

④를 살펴보자. ‘나의 꿈은 멋진 가수가 되는 것이다.’에서 ‘나의’는 뒤의 ‘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때 ‘나는 1인칭 대명사이며, ‘의’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해당 체언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관형격 조사’야. 그러므로 선지에서 대명사가 보조사와 결합했다는 것도 틀렸고, ‘나의’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틀렸어.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의 모음조화]

- 개념 :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현상
- 특징 :
 - 15세기 중세에서는 엄격히 지켜지다가,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짐
 - ‘한 단어 안’, ‘체언 + 조사’, ‘어간 + 어미’에서 나타남

양성모음	·, ㅏ, ㅑ (ㅕ, ㅗ, ㅛ, ㅜ, ㅠ, ㅡ 등) ㉔ 말쭙(말씀), 나눈(나는), 마그니(막+으+니)
음성모음	ㅓ, ㅕ, ㅛ (ㅓ, ㅕ, ㅛ, ㅜ, ㅠ, ㅡ 등) ㉔ 서르(서로), 너는(너는), 머그니(먹+으+니)
중성모음	ㅣ (중성 모음은 양성, 음성 어느 음과도 어울림)

[중세와 현대의 명사형 전성 어미]

(1) 중세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음/음’	부테 撥記 _{호사미} 글 썬미 꺾고
② 명사형 어미 ‘-기’, ‘-디’	겨집 出家 _{호기} 를 즐기디 말라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씨

(2) 현대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중세와 현대의 주격 조사]

(1) 중세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 + 이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 + ㅣ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 + ∅

(2) 현대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기린 + 이
가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승모 + 가
께서	높임 명사 뒤	할아버지 + 께서
에서	단체 무정 명사 뒤	정부 + 에서

['ㅎ' 종성 체언]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의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 존재했다.

예) ‘똥(똥), 갈(갈), 가숲(가을), 겨숲(겨울), 열(열), 하늘(하늘), 나랏(나라), 앓(앓), 술(수), 앓(안)’ 등

②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ㅅ’ 앞 → 예) 나라 / 나랏

- ‘ㅎ’ 종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나타날 때 ‘ㅎ’ 없이 쓰인다.

③ 나라ㅎ + 이(주격 조사) → 예) 나라히

- ‘ㅎ’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나타날 때 종성 ‘ㅎ’이 연음되어 나타난다.

④ 나라ㅎ + 과(부사격 조사) → 예) 나라과

- ‘ㅎ’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

[선택지 해설]

15.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㉓의 ‘을지드려’는 현대어로 ‘증자에게’에 해당해. 현대어에서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야. 그럼 중세의 ‘드려’ 또한 ‘에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해. ㉔의 ‘父母씩’는 현대어로 ‘부모께’에 해당해. 현대어에서 ‘께’는 ‘에게’의 높임말인 부사격 조사야. 이에 중세의 ‘씩’ 또한 부사격 조사 ‘드려’의 높임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겠지. 즉, ‘드려’와 ‘씩’는 둘 다 부사격 조사인데 ‘드려’는 ‘증자’라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대상에게, ‘씩’는 ‘부모’라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대상에게 사용되고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중세의 주격 조사는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면 ‘ㅣ’, |모음으로 끝나면 ‘∅’의 형태로 실현 돼. ㉓의 ‘孔子ㅣ’는 분석하면 ‘孔子 + ㅣ’이며 현대어로 ‘공자가’에 해당해. ‘ㅣ’가 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자’가 모음 ‘ㅏ’로 끝나서 주격 조사가 ‘ㅣ’ 형태로 실현된 거야. 다음으로 ㉔의 ‘아니흠이’는 분석하면 ‘아니 + ㅎ- + -음 + -이’로 현대어로 ‘아니함’이야. 이때 중세의 ‘이’는 현대국어에서 주격 조사에 해당하며 앞말이 ‘ㅁ’이라는 자음으로 끝나서 ‘이’의 형태로 실현되었어. 이렇게 주격 조사가 ‘ㅣ’와 ‘이’의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의 체언이 무엇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다른 거지 모음조화에 따라서가 아니야.

③을 살펴보자. ㉔의 ‘받조은’은 분석하면 ‘받- + -줄- + 은’이야. 여기서 우리는 ‘-줄-’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찾을 수 있어. 문장에서 ‘객체’란 목적어와 부사어를 말하지. 이 문장에서 높임을 받는 객체는 ‘부모께’의 ‘부모’이며, 선어말어미 ‘-줄-’은 이 객체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선어말어미가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렸어.

④를 살펴보자. ㉔의 ‘아니흠이’는 분석하면 ‘아니 + ㅎ- + -음 + -이’로 현대어로 ‘아니함’이야. 자, 현대국어에서 ‘아니함’은 분석하면 ‘아니 + ㅎ-(어간) + -(으)ㅁ(명사형 전성 어미)’야. 명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와서 용언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 용언이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조사도 붙을 수 있지. ‘아니함’에서도 주격 조사 ‘이’가 붙었잖아. 이에 중세 국어에서 ‘-음’도 명사형 전성 어미임을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중세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틀렸어.

⑤를 살펴보자. ㉔의 ‘일흠을’을 분석하면 ‘일흠(이름) + 을(목적격 조사)’이야. 선지의 ‘ㅎ’을 끝소리로 가지는 체언은 ‘ㅎ중성 체언’이라고 예를 들어 ‘암ㅎ, 수ㅎ, 머리ㅎ, 술ㅎ’ 등이 있어. 하지만 일흠은 뒤에 ‘ㅎ’을 끝소리로 가지지 않아. 오히려 본문에 ‘술ㅎ’이 ‘술ㅎ + 은’으로 ‘술ㅎ’이라는 ㅎ중성 체언이 사용되었어.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산문 [32~36번 지문]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르지 위태로운 데로 건너,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201p) #사용설명서(196p)

[작품 ‘한눈’에 보기]

[EBS 작품 풀이]						
<p>이 작품은 연암 박지원의 청나라 여행기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산장잡기(山莊雜記)’에 수록된 글로, 강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목인 ‘일야구도하기’는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 기록’이라는 뜻으로, 글쓴이는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감각과 외물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같은 감각 기관에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사물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						
주제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					
[작품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마음 상태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들림. • 승: 낮과 밤의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 • 전: 감각의 지각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음. • 결: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중국의 강을 본 경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조선에서 물소리를 들은 경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중국에서 강을 건너 경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강을 건너 후의 깨달음 </div>			
<p>강물의 형세와 주변의 경관을 소개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위엄을 전달함.</p>	→	<p>자신의 집 앞을 흐르는 물소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밝힘.</p>	→	<p>강을 건넌 경험을 언급하며 강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원인이 강을 건너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제시함.</p>	→	<p>조선으로 돌아간 후 자신이 취할 행동을 언급하며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을 밝힘.</p>
<p>⇒ 이 작품은 물소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깨달음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재가 분명히 '전력'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양철이 될 수 있다."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띄약별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 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길래,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솨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볼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tip 1] 위험

위험함은 '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은 사물일 뿐, 위험함은 이 사물을 인지하는 귀나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의존함에 있는 것이다. **사물을 그 자체로 보기 전에 내 눈과 귀로 사물을 먼저 판단하여 만든 선입견이 혼돈을 만들고 위험함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ip 2] 대상의 의미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다. 창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는 웅치 있게 들은 경우다. 거울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 이는 슬피하면서 들은 경우다." - EBS 수록 비문 중에서 -

작가는 물소리를 듣고 느낀 바를 나열하고 있는데, '- 경우'는 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즉 **마음먹기 혹은 마음 상태에 따라 대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를 보면 정말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p>[포인트1] 표현상의 특징</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일야구도하기」</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느낀 상념을 표현함.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삶의 이치를 제시함. • 고사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설득력을 강화함. </div> </div>	
<p>[포인트2]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산에서 계곡물 소리를 들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밤중에 강을 건너게 됨.</div>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0px;"> <p>자신이 보고 듣는 것은 '마음 속'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각에 현혹되지 않으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음.</p> </div> </div>	
EBS 핵심 문제	
<보기>	<p>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즉 인간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편견과 관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곤경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세간의 속설과 자신의 주관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공정한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해야 한다. 미신이나 기만, 오류나 혼란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고귀한 것이다.</p>
발문	<보기>의 관점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p>① ㉠: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지어 강물 소리를 판단하는 '어떤 이'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획득하기가 힘들겠군.</p> <p>② ㉡: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소리들과 비교하며 계곡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나'의 태도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태도에 해당하겠군.</p> <p>③ ㉢: 강물을 건너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하늘의 도움을 기원하는 것이라 여긴 '나'의 생각은 자신의 주관에 의지하여 대상을 판단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p> <p>④ ㉣: 강물의 소리를 주위의 지리적 환경과 관련지어 언급하는 '모두'의 태도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지양해야 할 태도에 해당하겠군.</p> <p>⑤ ㉤: '나'가 도를 깨달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물을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하겠군.</p>
정답 해설	<p>⑤ ㉤에서 '나'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면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한다는 점, 즉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기>의 관점에서 '마음'은 인간이 지닌 주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의 깨달음은 주관에 따라 외부 세계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가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물을 관찰했기 때문에 도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p>

[참고하기] EBS 'Q & A'

Q. <보기>를 참고할 때 글쓴이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A.

해당 문항은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과 말들을 평가한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는 인간이 편견과 주관이 아닌, 공정한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할 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물 소리가 웅장한 것을 옛 전쟁터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어떤 이의 태도나 다른 소리에 견주어 물 소리를 듣는 나의 태도, 요동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모두 자신의 주관에 의지하여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리에 도달하기 힘든 태도에 해당합니다. 글쓴이는 물소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은 '마음속'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각에 현혹되지 않으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속'을 다스리는 것은 글쓴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주관적인 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진리에 다가서기 힘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교훈>, 평가원 - '2018학년도 6월 이과, 「차마설」 外 』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곤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샷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과 개미가 이 뜻을 묻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음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쫘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문제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정답 해설	<p>④ (가)는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같은 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르고’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으며,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같은 표현을 통해 오류를 지키며 바람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에 주목하면서 그릇된 소유 관념을 경계하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는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p>
오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와 (나)에 ‘어와’, ‘아’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와 (나)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만 상반된 세계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권고하는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한 진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해설	<p>③ (나)는 말을 빌려 탄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을 임금,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주인과 비복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고 참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p>
오답 풀이	<p>① (가)는 <제2수>부터 <제6수>까지 관념적 덕목(유교의 오류)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것이지,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p>

	<p>② (가)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p> <p>④ (나)에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p> <p>⑤ (가)와 (나)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p>
<p>문제 3</p>	<p><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p>
<p>문제 선지</p>	<p>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p> <p>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p> <p>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p> <p>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p> <p>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p>
<p>정답 해설</p>	<p>② (가)의 <제4수>는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거안제미, 擧案齊眉)'를 통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수>는 화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p>
<p>오답 풀이</p>	<p>① <제3수>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벌과 일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도리라는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p> <p>③ <제5수>의 초장에서 아우가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젓'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5수>에서 형님과 아우는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p> <p>④ <제5수>의 '개돼지'는 오륜을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p> <p>⑤ <제6수>의 초장에서 '늙은이'는 부모에, 어른은 '형'에 빗대어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라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p>
<p>문제 4</p>	<p>(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공'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p>

	<p>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p> <p>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p> <p>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p> <p>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p>
정답 해설	<p>⑤ (나)에 인용된 맹자의 말은 그릇된 소유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통해 오래도록 빌리고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p>
오답 풀이	<p>① 이 글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린 경우 전전긍긍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노둔하고 야윈 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위험은 준마를 빌려 질주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p> <p>② 2문단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를 통해 준마를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p> <p>③ 글쓴이는 세상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미혹된 일이라 보고 있다.</p> <p>④ 이 글에서 '독부'는 빌린 권력을 돌려준(빼앗긴) 후의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p>

고전산문 [42~45번 지문] [이문구, '우리 동네 이씨']

"조항에서 영농 자금 대부 형식으로 TV나 전설 기록 이상 판매하는 정도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78) #사용설명서(174p)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마을의 이장은 확성기를 통해 조합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한편, 영농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리낙천은 조합 빚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을 훑어보며 고민하고, 윤선철이네 부모 생일 잔치를 비롯한 마을의 세태를 개탄한다.

[EBS 확인하기] 리낙천이 보는 마을의 세태

전에는 어떤 값이 짝지에 짝짜만 끌어 놓고 쌀 만한 이면 나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투리에 우거지 재겨 간장 곁에 놓고, 바라기에 새끼 무치 잡아지 앞에 올린 상을 반대라도 허물한 적이 없었으나, 시초 시절 같았던 것이 어느 옛날하듯 바뀌어 버린 것이다.

서사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러한 변화와 함께 서술된 서술자의 평가 혹은 서술에 내포된 서술자의 의도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달라진 마을의 세태에 대한 '리'의 평가 따위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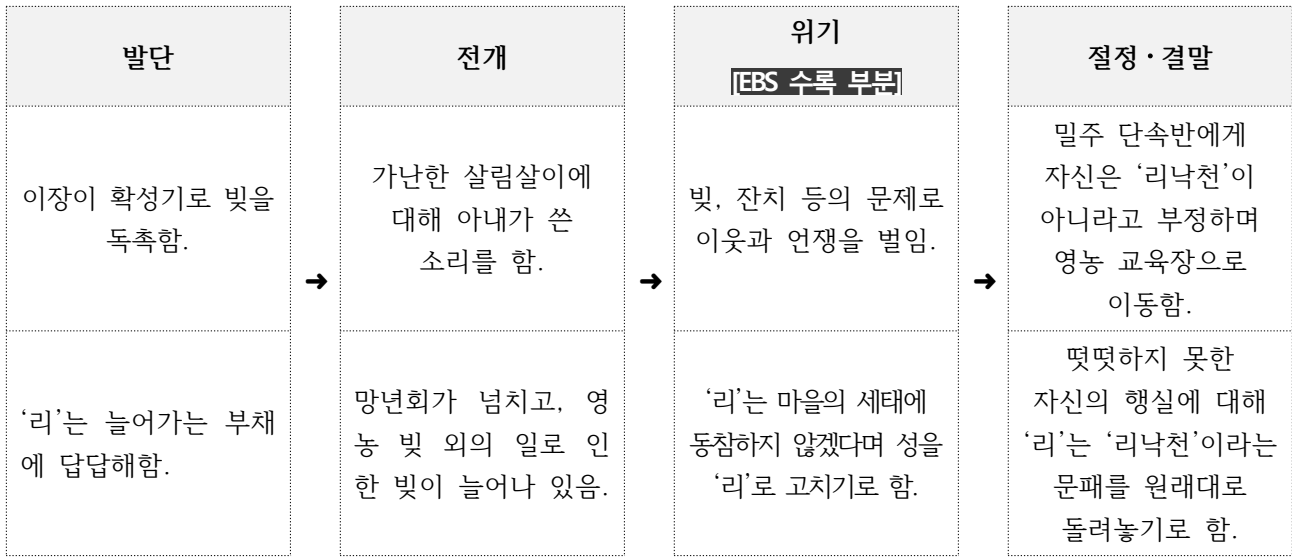
리는 이전에 인정을 우선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성을 이씨에서 리씨로 고치고 문패도 '리낙천'으로 바꾸어 달았지만, 정작 밀주 단속을 나온 세무서 직원에게 자신은 리낙천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리낙천은 남들과 달리 올바르게 살겠다던 자신도 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문패를 다시 갈기로 생각한다.

주제 산업화 시대 농민의 삶과 농촌 공동체의 현실

[작품 구조]

- 이 작품은 도시 문물의 유입과 농가 부채의 증가 등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을 '리낙천'이라는 인물의 생활을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생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이문구의 「우리 동네 이 씨」는 1970년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촌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서구 문화와 **도시의 유흥 문화가 유입**되는 당대의 상황에 주목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의 **영농 자금 대출이 농가 부채의 증가를 조장하는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등장할 될 수 있다.”

아내는 절로 나오던 탄식을 짐짓 굶더니

“**님의 집 서방덜은 크릿스마스 샌다구**, 지집 새끼 뺨 둘러앉히구 동까스를 먹을래, 탕수육을 먹을래, 잠바를 맞추라, 청바지를 사주랴 허구 복새를 피는디, 이 집구석 문패는 생전 마실 중이나 알지 먹을 중은 모르니, 에으—” 하고 다시 리의 비위를 갑작거렸다. 리는 참다 못해 울컥했다.

“공— 녀이사 크릿스마스를 쇠건 양력 술을 쇠건, 감자 먹을 늬이 고구마 먹이지..... 녀 잠두 품매게 자다 말구 일어나 쇠스랑 고스랑 허구 지랄덜여, 거.”

리는 재떨이를 더듬적거려 담배를 찾았다.

“암, 자게 생기구 말구..... 있는 집 지집은 개 소리에 잠 잃구, 읊는 집 지집은 귀뚜리 소리에 잠 나간단 말두 못 들었담. 새양쥐만 헌 새끼가 아갈거리며 소 먹미레 비비듯 허는디 자게 생겼어. **테레비만 키면 주야장천 크릿스마스 타령인디 잠이 워디서 오너.**”

[EBS] TV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아내가 리에게 요구하는 크리스마스는 ‘님의 집 서방덜’이 지내는 크리스마스 혹은 ‘테레비만 키면’ 보이는 크리스마스로 ‘남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크리스마스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아내의 불만을 통해 도시의 문화가 농촌에 유입되며 그에 맞는 소비를 농촌 사회에 재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잠이 안 오걸랑 콩너물 시루에 물이나 한 종구래기 찌었던지.....”

리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방 안은 그저 아웅한 채였고 확성기는 아직도 징글벨만 불러 대고 있었다. 짐작건대 이장은 그전처럼 노래판만 없고도 도로 고고르르 굶아떨어지고, 앰프는 기계 요리 모르는 이장 어머니가 여물 부엌과 사랑 문턱을 들랑대며 들여다보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다시 되작거렸다.

“노래 제목 하나는 제 소리 나게 붙였네. 징글징글헌 늬으 징글벨.....”

“크릿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소용 있는 날이라구 타이르지도 못혀?”

물었던 담배를 비벼 끄며 성질을 부리는 사품에 아이는 얼굴이 들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아내는 땀 세 짝자 붙을 가마리가 제대로 걸렸다 싶은지 되곱쳐 턱살을 쳐들며 무람없이 대들었다.

“크릿스마스는 예배당허구 척진 것덜이 더 지랄허는 날인 중두 몰랐더라보.”

리가 대꾸를 얹자 아내는 거듭 덧거리를 했다.

“초파일날 지달려 팽매기 치메 노는 것덜 치구 부쳐 위허는 것 봤어? 헐 말 읊걸랑 읊 서방네서 델러 오기 전에 여물술에 연탄이나 갈아 늬으.”

리는 할 말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무름하니 지레 속어들기도 멍둥하여 부질없이 응수했다.

“그러면, 빗구럭에 처백헌 것덜이 갈망 읊이 테레비나 본떠서, 애덜 얹혀 농구 크릿스마스나 챗으야 애비 노릇 헌다는겨?”

“빛구렁에 백혔건 빗데미에 치였건, 있네 읊네 해두 눈 얼 때 옛 고구, 밭 얼 때 술 담는 게 농촌 풍속이다.....”

아내는 쉬어 가며 떠들었다.

“자기 입으루다 장 농군은 가을부자라고 책 읽듯 했잖여. 봄내 허리띠 졸라매구, 여으내 허리 꼬부러졌다가 가을 한 철 희떠운 소리 해 보구, 겨울에나 놀어 보는 게 농군이라메? 그때가 원젠디 헛바늘 슨 소리만 예사루혀?”

“시방이 워느 판국인지 알구나 허는 소리여? 접때 지 서기 허는 말 들어 봉께 올 연말까장 우리게 사람이 값으야 혈 단위 조합 빛이 이천이백만 원 돈이라는 거. 알겠어? 조합 빛이 그 지경이면 사채두 이천만 원을 웃돈다는 얘기여. 사채할래 사천만 원을 칠십두 가구루 찌개 봐. 가구당 평균 얼마 끌인지..... 그런 것덜이 크릿스마쓰는 뉘며 관광계(觀光契)는 다 뭇 말러 비틀어진 거?”

리는 하던 말끝에 열며서

“촌 여편네덜이 집구석에 들었어 시래기나 삶는 게 아니구 되잖게 망년회는 또 무슨 망헐녀리 것이여? 내남적 읊이* 밥상 들여다보면 꼴두기껏 한 저봄 못 올리며 무 배차루만 열두 가지 모양내어 처먹는 것덜이, 뭐여? 회비가 천 원? 공—”

(중략)

먹매*나 마찬가지로 농약과 비료는 매년 비스름하게 들은 터였으니, 한 해 영농 빛이 8만여 원 돈이 났다면 남들에 비해 그리 많다 할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예년 같지 않고 생각도 못 해 본 빛은 불도저 사용료와 가전제품 값이었다.

가전제품 값도 큰맘 먹으면 눈감아 둘 수 있었다.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덕을 보았기 때문이다. 리도 아다시피 근본적인 잘잘못을 따지자면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뒤틀린 살림 규모와 설익은 정신**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부채질해 가며 **조합이 영리만 노리는 것도 모른 척하기만 할 일이 아니었다**. 조합에서 영농 자금을 농민들보다 장터 상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부해 주는 행위도 그렇지만, **영농 자금 대부 형식으로 TV나 전열 기구를 외상 판매하는 짓도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리도 자기의 불찰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 풍속이 이미 그쪽으로 기운 이상, 자기 혼자서만 외면하기도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tip] 자금 대부 형식으로 가전 제품 외상

조합은 '영농 자금 대부 형식으로 TV나 전열 기구를 외상 판매'를 통해 농민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게까지 만듦으로써 이미 뒤틀린 농민들의 살림에 부채를 가중시켰다. 리는 이러한 조합의 행위를 '조합의 영리만 노리는 행위'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조합의 영농 자금 대출 방식이 농민들의 소비 및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는 작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이문구, 「우리 동네 이 씨」-

* 내남적읊이: 나와 다른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 먹매: 음식 또는 음식비.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p>이 작품은 197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발표된 연작 소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들은 성장 제일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추진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농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 구조와 풍속, 나아가서는 농민의 의식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농민은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있다. 특히 작가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의해 급격히 와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윤리와 질서에 대해 냉정하면서도 담담한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농민이나 농촌 공동체의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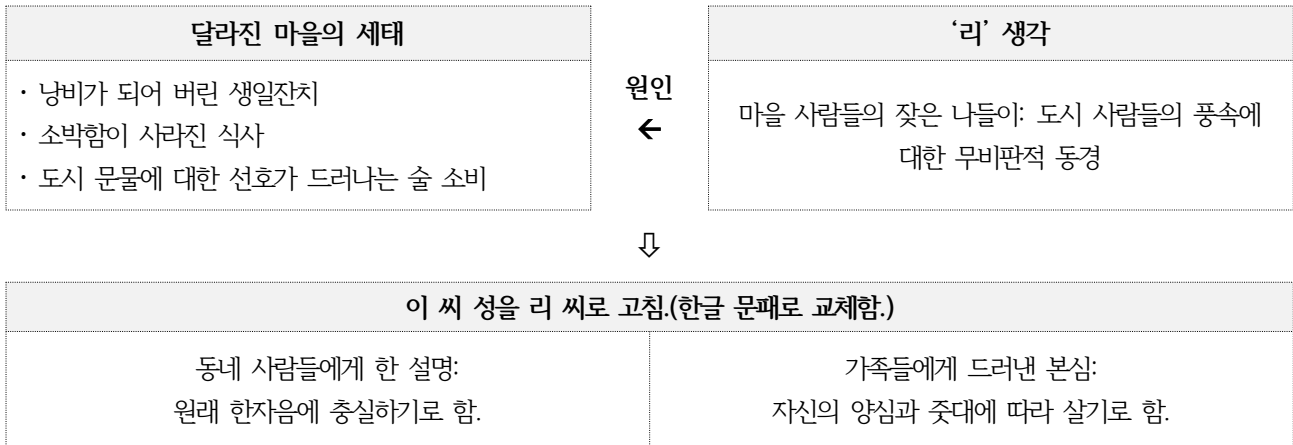
EBS 연계 POINT

[포인트1] 표현상의 특징

「우리 동네 이 씨」 ⇒

- 충청 방언을 기반으로 풍부한 우리말 표현을 활용하여 생생한 현실감을 드러냄.
-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대 농촌의 상황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드러냄.
- '리낙천'의 시선으로 서사가 진행되나,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서술됨.

[포인트2] 마을 인심의 변화와 '리'의 대응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 TV

「우리 동네」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농촌의 일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탁월하게 재현하고 있다. 1970년대 도시를 시발로 빠르게 대중화한 전자 제품은 농촌 사람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물신이 된다. 그들은 전자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도시적 일상을 향유하는 대리충족을 맛보고, 도시 문화를 모방하는 것으로 '사이비 국민'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은폐시키고자 한다. 「우리 동네 이 씨」에서 TV는 도시의 온갖 '소비적 작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며, 사람들을 '소비적 욕망'을 충동질하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의 욕망은 '소비적 욕망'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수렴되며,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농촌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원인이 된다.

EBS 핵심 문제	
<보기>	<p>이 작품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났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시기 농촌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해 온 풍습조차도 속물적 판단에 의해 무력화 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근대적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도시의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을 드러내었음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실의 변화에 대해 성찰적 비판보다는 무비판적 추종이 우세했음도 드러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통해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온 도시화에 대한 비판 의식과 당대 정치 현실과 관련된 민중의 대응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p>
발문	<p><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문제 선지	<p>① '부모 생일'에 '동네잔치'를 벌이던 풍속이 '낭비라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은 공동체의 풍습이 속물적 판단에 의해 힘을 잃어 가는 변화를 보여 주는군.</p> <p>② '환타, 콜라, 사이다, 박카스 따위를 영양제로 믿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근대적 문물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호를 보이는 농민들의 경향을 보여 주는군.</p> <p>③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삼사십 대의 장년층'이 '동네'를 이끌어 가게 된 상황은 농촌 공동체의 해체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 주는군.</p> <p>④ '소문난 유흥지'에서 경험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것'을 '발전'으로 보는 동네 사람들의 믿음은 도시의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을 보여 주는군.</p> <p>⑤ '세상일을 쳐들며 쓰네 못쓰네 하'는 말에 대해 '관청에 투서질하는' 동네 사람들의 행태는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 주는군.</p>
정답 해설	<p>③ '삼사십 대의 장년층'이 동네를 이끌게 된 상황은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동네의 노년층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들 거리가 도시 적응에 실패하고 귀향한 사람들이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농촌의 세대교체는 농촌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그것이 농촌 공동체 해체의 근본적 원인이라 하기 어렵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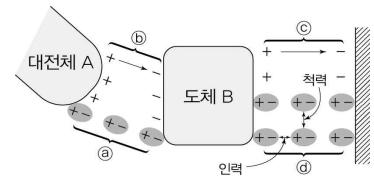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과학[37~41번 지문][힘의 상호작용에 대한 패러데이의 이론]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석 근처에 놓인 금속 조각은 자석에 끌려간다. 이는 마치 원격 작용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원격 작용은 서로 떨어진 두 물체가 중간의 매개체 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19세기 중반까지도 자석과 금속 간의 인력뿐만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들 간의 인력인 뉴턴의 만유인력, 전하들 간의 인력이나 척력인 쿨롱의 힘을 원격 작용의 원리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만유인력이나 쿨롱의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공식은 원격 작용 이론과 양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힘의 상호작용은 장(場)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장 개념은 19세기 중반 패러데이가 전기와 자기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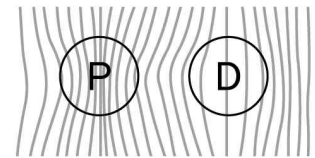
패러데이가 처음부터 장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는 정전기 유도를 <그림 1>의 ㉠와 같은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에 의해 매개되는 현상으로 생각했다. 정전기 유도란 전하를 띤 물체인 대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의 표면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에서 먼 쪽의 표면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패러데이는 ㉠의



<그림 1>

분극된 입자들 사이에서는 (+)와 (-)가 상쇄되지만 연쇄의 양쪽 말단에는 극성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전하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를 ㉡와 같은 화살표로 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를 전기력선이라고 불렀다. 그에게 (+) 전하와 (-) 전하는 전기력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했다. 나아가 그는 전하는 항상 쌍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오른쪽에 (+) 전하가 유도되었다면 이것을 시작점으로 가지는 전기력선이 끝나는 어딘가에 반드시 (-) 전하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기력을 전하들 간의 인력과 척력으로 보는 대신, ㉣에서 보듯 전기력선 내부의 인접한 분극 입자들 간의 인력과 평행하게 이웃한 전기력선 간의 척력으로 재해석하였다. B가 A 쪽으로 끌리는 것은 결국 분극된 입자들 간의 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전기 유도를 전기적 긴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정전기 유도는 A와 B 간에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체, 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는 물체이다. 실제로 A와 B 사이에 도체가 꽂히도록 삽입되면 전기적 긴장이 풀리면서 전기력선과 전하가 사라진다. 그런데 부도체마다 전기적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다. 패러데이는 이 능력을 ‘유전율’이라고 불렀다. 실험 결과 부도체마다 유전율이 다름을 확인한 그는 정전기 유도가 원격 작용이 아니라 분극 입자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전기 유도와 유전율에 대한 실험 결과는 원격 작용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패러데이의 주장이 널리 수용되지는 않았다.



<그림 2>

사실 패러데이의 설명에는 A와 B 간의 원격 작용은 부정하면서 분극 입자들 간의 미세한 원격 작용은

허용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A와 B 사이를 공기 이외의 어떤 물질로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발생한다는 것도 난점이었다. 그는 공기 입자들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결국 정전기 유도가 인접한 분극 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는 가설을 폐기하고,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 같은 역선이 실재하고 역선이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패러데이는 새로운 가설에 따라 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상이한 성질을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자기력선은 진공은 물론 모든 물질을 투과한다. 다만 물질에 따라 자기력선의 투과율이 다른데, 자성체는 자기력선의 투과율이 진공보다 높고 반자성체는 진공보다 낮다. 그리고 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끌어당기고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밀어낸다. 그래서 <그림 2>처럼 세로 방향의 자기력선들이 지나는 공간에 자성체(P)와 반자성체(D)를 놓으면, P의 오른쪽은 P의 왼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아지고 D의 왼쪽은 D의 오른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진다. 한편 물체들도 각자의 성질에 걸맞게 운동하는데, 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은 쪽으로,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림 2>에서 P는 오른쪽으로, D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P와 D의 운동은 두 물체 간의 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두 물체가 자기력선과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는 역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원격 작용을 상정하지 않고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역선이 공간에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선이 모여 있는 공간을 장이라는 말로 지칭하였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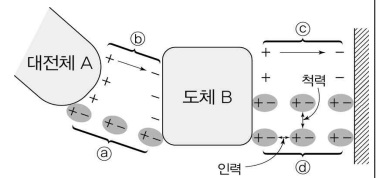
자석 근처에 놓인 금속 조각은 자석에 끌려간다. 이는 마치 원격 작용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원격 작용은 서로 떨어진 두 물체가 중간의 매개체 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C)으로, 19세기 중반까지도 자석과 금속 간의 인력뿐만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들 간의 인력인 뉴턴의 만유인력, 전하들 간의 인력이나 척력인 쿨롱의 힘을 원격 작용의 원리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만유인력이나 쿨롱의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공식은 원격 작용 이론과 양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힘의 상호작용은 장(場)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장 개념은 19세기 중반 패러데이가 전기와 자기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 천천히 읽어줍니다. 표면적으로 두 개념을 대립시키고 있는데요. '원격 작용 이론'과 '장 개념'입니다.
- ② '원격 작용 이론'은 서로 떨어진 두 물체가 '매개체 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출 분석도 하고, 여러 독서 지문들을 봐왔기 때문에, '매개체'라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매개체 없이'라는 말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③ 내용상 서로 대립하는 이론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립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1문단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격 작용 이론'은 어느정도 디테일을 쫓았는데, '장 개념'은 '패러데이가 도입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립 관계로 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 ④ 이렇게 대립 관계까지만 정리해주면 충분한데, 혹시나 '원격 작용 이론'의 '매개체 없이'라는 말과 '장을 매개로 하여'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이걸 차이점으로 잡고 넘어간 학생들이 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단어를 놓치지 않는 것은 훈련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패러데이가 처음부터 장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는 정전기 유도를 <그림 1>의 ㉠와 같은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에 의해 매개되는 현상으로 생각했다. 정전기 유도란 전하를 띤 물체인 대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의 표면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에서 먼 쪽의 표면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C)을 말한다. 패러데이는 ㉠의 분극된 입자들 사이에서는 (+)와 (-)가 상쇄되지만 연쇄의 양쪽 말단에는 극성이 남게 되

는데, 이것이 전하(C)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를 ㉞와 같은 화살표로 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를 전기력선(C)이라고 불렀다. 그에게 (+) 전하와 (-) 전하는 전기력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했다. 나아가 그는 전하는 항상 쌍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㉞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오른쪽에 (+) 전하가 유도되었다면 이것을 시작점으로 가지는 전기력선이 끝나는 어딘가에 반드시 (-) 전하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기력을 전하들 간의 인력과 척력으로 보는 대신, ㉞에서 보듯 전기력선 내부의 인접한 분극 입자들 간의 인력과 평행하게 이웃한 전기력선 간의 척력으로 재해석하였다. B가 A 쪽으로 끌리는 것은 결국 분극된 입자들 간의 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 1>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쟁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당연히 2문단부터 ‘장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은 짜증이 났을 수 있습니다. ‘장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그 전에 제시했던 이론부터 설명하겠다고 첫 번째 문장부터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력 유지하고 버티는 구간입니다.
- ② ‘장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패러데이의 ‘정전기 유도’를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에 의해 ‘매개’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문단에 읽은 내용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비교점이 아래와 같이 잡힙니다.
[정전기 유도] :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에 의해 매개(초기 이론) ⇨ ‘장’에 의해 매개(후기 이론)
- ③ 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전기 유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요. 개념 잘 읽어줍시다. 다만 이때부터는 <그림 1>을 잘 참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림 1>로 볼 때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림에서 ‘도체 B’를 보면 ‘대전체 A’ 쪽 표면(왼쪽)에는 (-) 전하가, 반대쪽 표면(오른쪽)에는 (+)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정전기 유도 현상 파악 끝났습니다.
- ④ 이후에 나오는 패러데이의 이론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그림 1>에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경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글만 읽어서는 연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⑤ 패러데이가 말한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가 무엇인지 봅시다. 일단 ‘전하’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분극된 입자들’과 ‘전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분극된 입자들’ ↔ ‘전하’
(=극성 無) ↔ (=극성 有)

- ⑥ 그리고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를 ‘전기력선’이라고 하며, <그림 1>에서는 화살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림에 빈 공간처럼 보이는 (+) 전하와 (-) 전하들 사이에는 매개체가 되는 ‘분극된 입자들’이 들어차 있고, 이들은 방향성을 가지는데, 이를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기력선은 (+) 전하 쪽(시작점)에서 (-) 전하 쪽(끝점)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⑦ 다음에 나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 있으면 (-)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읽어주면 됩니다.
- ⑧ 다음은 인력(당기는 힘)과 척력(밀어내는 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림 1>을 보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기력선’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전기력선’들 사이에는 척력이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인해 B가 A 쪽으로 끌리게 된다는 것이 패러데이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전기력선’을 ‘고무줄’이랑 비슷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늘려놓은 고무줄로 A와 B를 이어놓으면 고무줄의 당기는 힘으로 인해 A와 B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할 테니까요. (물론 척력은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ㅎㅎ)

그런데 그는 정전기 유도를 전기적 긴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정전기 유도는 A와 B 간에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체(C), 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는 물체(C)이다. 실제로 A와 B 사이에 도체가 꽂 끼도록 삽입되면 전기적 긴장이 풀리면서 전기력선과 전하가 사라진다. 그런데 부도체마다 전기적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다. 패러데이는 이 능력을 유전율(C)이라고 불렀다. 실험 결과 부도체마다 유전율이 다름을 확인한 그는 정전기 유도가 원격 작용이 아니라 분극 입자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전기 유도와 유전율에

대한 실험 결과는 원격 작용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패러데이의 주장이 널리 수용되지는 않았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생각해보면, 위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와, 그로 인한 인력의 작용이지, '정전기 유도'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는 '전기적 긴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② 패러데이에 따르면 '대전체 A'와 '도체 B' 사이에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것이 정전기 유도입니다.
- ③ '부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체이고, '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는 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적 긴장 형성'은 곧 '정전기 유도'였으니,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이고 '도체'는 '정전기 유도를 유지할 수 없는 물체'라는 것으로 바뀌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 ④ 이쯤되면 앞에서 읽은 내용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결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저처럼 그냥 3, 4문단 따로따로 읽으면 됩니다. 연결이 필요하다면 지문에서 유도하거나, 직접 연결해 주겠지요.
- ⑤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인데, '부도체'마다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패러데이는 이 능력, 즉 정전기 유도(전기적 긴장)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 ⑥ 부도체마다 유전율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패러데이는 정전기 유도가 원격 작용이 아니라 분극 입자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와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배경지식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⑦ 패러데이의 주장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정전기 유도와 유전율에 대한 실험 결과는 '원격 작용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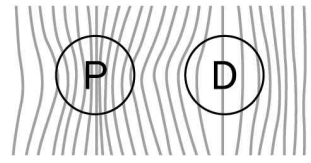
사실 패러데이의 설명에는 A와 B 간의 원격 작용은 부정하면서 분극 입자들 간의 미세한 원격 작용은 허용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A와 B 사이를 공기 이외의 어떤 물질로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발생한다는 것도 난점이었다. 그는 공기 입자들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결국 정전기 유도가 인접한 분극 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는 가설을 폐기하고,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 같은 **역선**이 실재하고 **역선**이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글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주의해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 ② 앞선 패러데이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이 두 가지 더 제시되었습니다.
 - (1) 분극 입자들 사이의 원격 작용은 왜 인정하나?
 - (2) A와 B 사이를 공기로만 채워도(매개체가 없어도) 정전기 유도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③ 나름 반격(공기가 매개체가 된 것이다)을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패러데이는 이론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 전환입니다.
- ④ 패러데이는 '자기력선'과 같은 '역선'이 실재하고, 이 '역선'이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3문단에서 패러데이는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가 '자기력선'이라고 했었는데, 이 이론을 포기한 것입니다.
- ⑤ 정확히 어떻게 포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음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이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는 새로운 가설에 따라 **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상이한 성질을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자기력선은 진공은 물론 모든 물질을 투과한다. 다만 물질에 따라 자기력선의 투과율이 다른데, **자성체**는 자기력선의 투과율이 진공보다 높고 **반자성체**는 진공보다 낮다. 그리고 **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끌어당기고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밀어낸다. 그래서 <그림 2>처럼 세로 방향의 자기력선들이 지나가는 공간에 자성체(P)와 반자성체(D)를 놓으면, P의 오른쪽은 P의 왼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아지고 D의 왼쪽은 D의 오른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진다. 한편 물체들도 각자의 성질에 걸맞게 운동하는데, **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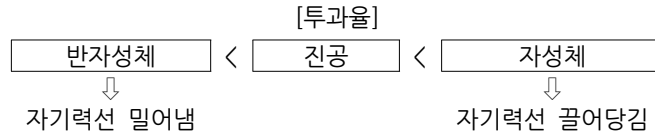
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은 쪽으로,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림 2>에서 P는 오른쪽으로, D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P와 D의 운동은 두 물체 간의 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두 물체가 자기력선과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의 역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원격 작용을 상정하지 않고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역선이 공간에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선이 모여 있는 공간을 장이라는 말로 지칭하였다.



<그림 2>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앞문단에서 패러데이가 기존의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자기력선 실재)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패러데이는 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 ② 패러데이에 따르면, 실재하는 존재인 ‘자기력선’은 모든 물질을 투과합니다. 다만 물질에 따라 투과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음 문장까지 묶어서 정리해봅시다.



- ③ 다음부터는 <그림 2>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P는 자성체이고 D는 반자성체입니다. P의 오른쪽이 P의 왼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D는 자기 왼쪽의 자기력선을 P의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P는 자기력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림 2>에는 이 밀도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왜 밀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해된다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 ④ 자성체(P)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은 쪽으로 반자성체(D)는 밀도가 더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서로를 향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⑤ 이렇게 P와 D가 이동하는 것은 입자들 혹은 물체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자기력선의 매개에 따른 것입니다. 패러데이는 이렇게 실재하는 자기력선이 모여 있는 공간을 ‘장’이라고 했습니다. 1문단에서 말했던 ‘장 개념’이 지문의 맨 마지막에 나왔네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진'에서 '목랑성'까지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화자의 내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목랑성'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주변 경관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이동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목랑성'에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만족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원수대'에서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원수대'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고향에서의 추억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고, ㉡은 글쓴이의 두려움을 심화시킨다.
- ④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은 글쓴이의 적막한 처지를 부각한다.
- ⑤ ㉠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이고, ㉡은 글쓴이가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34. ㉠을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살이'보다 '높고 험한 철령'을 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변방으로 가는 화자의 괴로움을 부각하고 있어.
- ② '마천령'을 넘으며 '진관'이나 '축잔'을 언급한 것은 여정의 험난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변방 백성'들과 '조정'의 신하들을 대비하여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살피지 않는 신하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진'과 '고을'을 각각 벌과 바둑돌에 비유하며 '험한 지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자신이 있는 곳을 '낮선 땅'이라고 여기며 '대궐'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서글픈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35.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는 수풀과 파도 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대목을 통해 '원수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 ② (나)에서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구절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③ (다)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다양하게 열거한 부분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낸다.
- ④ (다)에서는 '요하'를 건너는 경험을 제시하며 감각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부임지로 가는 여정을, (다)에서는 '낮'과 '밤'을 대비하며 강을 건너는 경험을 드러낸다.

36. (다)의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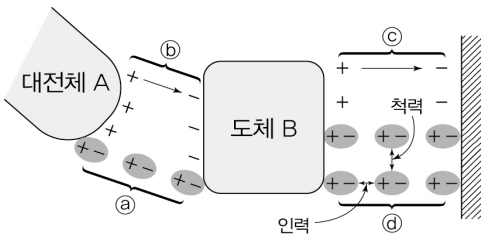
- ① '나'는 요동 별판이 넓어서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밤에는 어두워 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나'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강을 건너면 어지럼증이 생겨 물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강을 건너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 ⑤ '나'는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강을 건너는 이 유가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석 근처에 놓인 금속 조각은 자석에 끌려간다. 이는 마치 원격 작용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원격 작용은 서로 떨어진 두 물체가 중간의 매개체 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19세기 중반까지도 자석과 금속 간의 인력뿐만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들 간의 인력인 뉴턴의 만유인력, 전하들 간의 인력이나 척력인 쿨롱의 힘을 원격 작용의 원리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만유인력이나 쿨롱의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공식은 원격 작용 이론과 양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힘의 상호작용은 장(場)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장 개념은 19세기 중반 패러데이가 전기와 자기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37-㉢

패러데이가 처음부터 장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는 정전기 유도를 <그림 1>의 ㉠와 같은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에 의해 매개되는 현상으로 생각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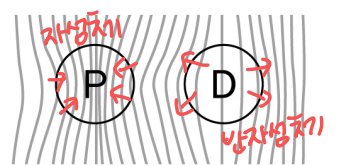
정전기 유도란 전하를 띤 물체인 대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의 표

면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에서 먼 쪽의 표면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패러데이는 ㉠의 분극된 입자들 사이에서는 (+)와 (-)가 상쇄되지만 연쇄의 양쪽 말단에는 극성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전하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분극된 입자들의 연쇄를 ㉢와 같은 화살표로 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를 전기력선이라고 불렀다. 그에게 (+) 전하와 (-) 전하는 전기력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했다. 나아가 그는 전하는 항상 쌍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오른쪽에 (+) 전하가 유도되었다면 이것을 시작점으로 가지는 전기력선이 끝나는 어딘가에 반드시 (-) 전하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기력을 전하들 간의 인력과 척력으로 보는 대신, ㉣에서 보듯 전기력선(내부)의 인접한 분극 입자들 간의 인력과 평행하게 이웃한 전기력선 간의 척력으로 재해석하였다. B가 A 쪽으로 끌리는 것은 결국 분극된 입자들 간의 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전기 유도를 전기적 긴장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전기 유도는 A와 B 간에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물체, 도체는 전기적 긴장을 유지할 수 없는 물체이다. 실제로 A와 B 사이에 도체가 꽂히도록 삽입되면 전기적 긴장이 풀리면서 전기력선과 전하가 사라진다. 그런데 부도체마다 전기적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다. 패러데이는 이 능력을 '유전율'이라고 불렀다. 실험 결과 부도체마다 유전율이 다름을 확인한 그는 정전기 유도가 원격 작용이 아니라 분극 입자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전기 유도와 유전율에 대한 실험 결과는 원격 작용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패러데이의 주장이 널리 수용되지는 않았다.

사실 패러데이의 설명에는 A와 B 간의 원격 작용은 부정하면서 분극 입자들 간의 미세한 원격 작용은 허용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A와 B 사이를 공기 이외의 어떤 물질로도 채우지 않을 상태에서 정전기 유도가 발생한다는 것도 난점이었다. 그는 공기 입자들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결국 정전기가 인접한 분극 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는 가설을 폐기하고,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 같은 역선이 실재하고 역선이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패러데이는 새로운 가설에 따라 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상이한 성질을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자기력선은 진공은 물론 모든 물질을 투과한다. 다만 물질에 따라 자기력선의 투과율이 다른데, 자성체는 자기력선의 투과율이 진공보다 높고 반자성체는 진공보다 낮다. 그리고 자성체는 자

기력선을 끌어당기고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을 밀어낸다. 그래서 <그림 2>처럼 세로 방향의 자기력선들이 지나는 공간에 자성체(P)와 반자성체(D)를 놓으면, P의 오른쪽은 P의 왼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



<그림 2>

아지고 D의 왼쪽은 D의 오른쪽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진다. 한편 물체들도 각자의 성질에 걸맞게 운동하는데, 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은 쪽으로, 반자성체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림 2>에서 P는 오른쪽으로, D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P와 D의 운동은 두 물체 간의 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두 물체가 자기력선과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는 역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원격 작용을 상정하지 않고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역선이 공간에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선이 모여 있는 공간을 장이라는 말로 지칭하였다.

37.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 ① 정전기 유도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 ○
- ② 과학자들이 원격 작용 이론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X → 이런 내용은 본문에 언급 X.
- ③ 장 개념이 과학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
- ④ 패러데이는 역선이 실재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 → 그림 2와 같은 실험 결과
- ⑤ 정전기 유도 현상을 분극 입자들의 매개 작용으로 설명하는 관점에는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 ○
나원격 작용 허용의 장점, 공기 이외의 어떤 물질도 없을 때에도 정전기 발생

38.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① 만유인력에 대한 수학 공식은 원격 작용 이론과 모순된다. X
- ② 오늘날에는 자석이 금속을 중간의 매개체 없이 직접 끌어당긴다고 설명한다. X → 오늘날에는 원격작용이론에 의한 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성질에 대한 패러데이의 설명은 오늘날의 설명과 동일하다. X → 오늘날과는 다르게 설명했다고 나와있다.
- ④ 전기력을 전하의 인력과 척력으로 보는 관점은 19세기 중엽 이전에 등장하였다. ○ → 17기의 관점이고, 패러데이가 '장'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19세기 중엽이므로
- ⑤ 패러데이는 (+) 전하와 (-) 전하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X
→ 첫 가설에서 '역선'에 대한 가설도 보았음. 선지에서 설명하는 것 첫 가설인데, 이는 폐기됨.

39.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원격 작용이 있다고 가정해도 설명할 수 있었다. ○ → 지문 확인
- ② 대전체와 도체 간에 공기 이외의 아무런 물질이 없을 때에도 발생한다. ○ → 패러데이의 첫 주장이 지냈던 문제점 중 하나
- ③ 패러데이가 분극된 입자들의 매개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 첫 가설이었다.
- ④ 패러데이가 대전체와 도체 간에 전기적 긴장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 → 또한 첫 가설
- ⑤ 패러데이가 전기력선을 구성하는 입자들 간에 틈이 없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X
→ 인접한 분극 입자들 간의 인력과 평행하게 이웃한 전기력선 간의 척력으로 인해 전기력이 생긴다고 생각함. '척력'은 밀어내는 힘이므로 틈이 없어야 한다는 선지의 설명은 맞지 않다.

37-①

40-②

39-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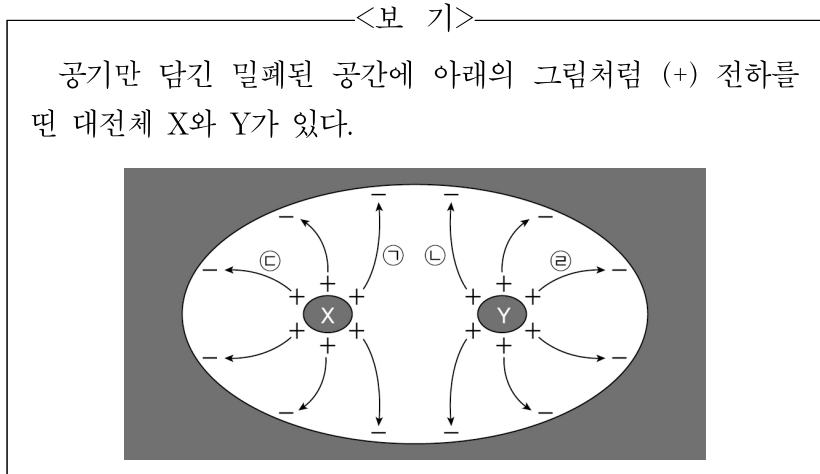
39-①

37-⑤

3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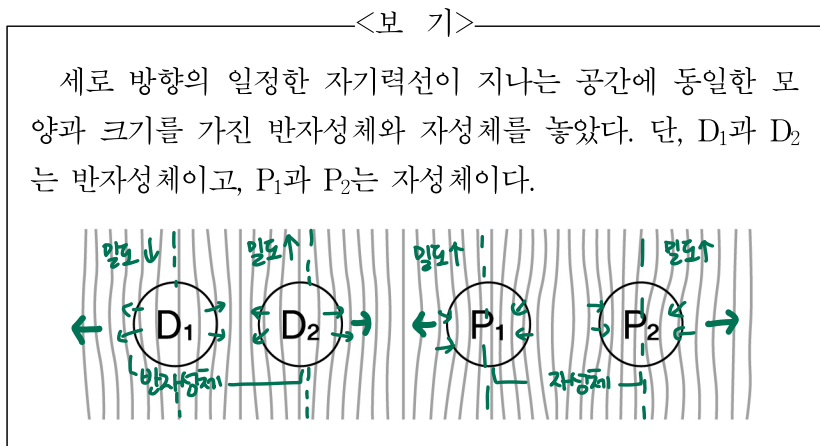
38-③

40. 윗글의 ㉔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X와 Y는 서로를 직접 잡아당기지 않는다. X → 직접 잡아당긴다면 원거리공기중에 해당된다.
- ② 전기력선 ⊕과 ⊙은 서로를 밀어낸다. ○ → 전기력선 간의 척력
- ③ 전기력선 ⊖은 도체 속을 통과할 수 있다. X → 도체는 전기적 전장을 유할 수 없다.
- ④ 전기력선 ⊖ 내부의 인접한 입자 간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 → 거스름
- ⑤ 전기력선 ⊕, ⊙, ⊖, ⊖은 분극된 공기 입자들의 연쇄를 나타낸다. ○ → 첫 번째 가설.

41. 윗글에 나타난 패러데이의 관점에 따라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③



- ① P₁과 P₂는 서로 가까워지겠군. X →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 멀어진다.
- ② D₁과 D₂는 서로 직접 잡아당기겠군. X → 서로 밀어내기와 직접 잡아당기는 것 또한 아니다.
- ③ D₁은 왼쪽으로, P₂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군. ○
- ④ P₁의 왼쪽은 P₁의 오른쪽보다 자기력선이 희박하겠군. X
- ⑤ D₁과 D₂ 사이는 P₁과 P₂ 사이보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겠군. X
- ③ : 반자성체는 밀도가 낮은 쪽으로, 자성체는 밀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 ④ : P₁의 왼쪽은 P₁의 오른쪽보다 자기력선이 희박하지만 D₂에 의해 밀려난 자기력선들로 인해 가까워진다.
- ⑤ : 반대이다.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 D₁과 D₂ 사이에는 자기력선들이 밀려나 밀도가 높아지는데, P₁과 P₂ 사이에는 자기력선들이 P₁과 P₂에 의해 끌려져 밀도가 낮아지므로 D₁과 D₂ 사이의 밀도가 더 높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는 절로 나오던 탄식을 짐짓 굶더니
 “넌의 집 서방덜은 ㉔ 크릿스마쓰 센다구, 지집 새끼 뺨 둘러
 앓히구 동까스를 먹을래, 탕수육을 먹을래, 잠바를 맞추랴,
 청바지를 사주랴 허구 복새를 피는디, 이 집구석 문패는 생
 전 마실 중이나 알지 먹을 중은 모르니, 예—”
 하고 다시 리의 비위를 감작거렸다. 리는 참다 못해 울컥했다.
 “공— ㉕ 넌이사 크릿스마쓰를 쇠진 양력 슬을 쇠진, 감자 먹
 을 늪이 고구마 먹이지…… 넌 잠두 품매게 자다 말구 일어
 나 쇠스랑 고스랑 허구 지랄덜여, 거.”
 리는 재떨이를 더듬적거려 담배를 찾았다.
 “암, 자게 생기구 말구…… 있는 집 지집은 개 소리에 잠 잃
 구, 옹는 집 지집은 귀뚜리 소리에 잠 나간다던 말두 못 들
 었담. 새양취만 현 새끼가 아갈거리며 소 먹미레 비비듯 허
 는디 자게 생겼어. 텔레비만 키면 주야장천 크릿스마쓰 타
 령인디 잠이 워디서 오너.”
 “잠이 안 오걸랑 콩너물 시루에 물이나 한 종구래기 찌엿던
 지…….”
 리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방 안은 그저 아옹한 채였고 확정
 기는 아직도 ㉖ 징글벨만 불러 대고 있었다. 짐작건대 이장은
 그전처럼 노래판만 엮고도 도로 고고르르 풀아떨어지고, 앰프
 는 기계 요리 모르는 이장 어머니가 여물 부엌과 사랑 문턱을
 들랑대며 들여다보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다시 되작거렸다.
 “㉗ 노래 제목 하나는 제 소리 나게 붙였네. 징글징글헌 늪으
 징글벨…….”
 “크릿스마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소용 있는 날이라구 타이
 르지두 못허?”
 물었던 담배를 비벼 끄며 성질을 부리는 사품에 아이는 얼겁
 이 들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아내는 텅세 찍자 불을
 가마리가 제대로 걸렸다 싶은지 되곱쳐 턱살을 쳐들며 무릅없
 이 대들었다.
 “㉘ 크릿스마쓰는 예배당허구 척진 것덜이 더 지랄허는 날인
 중두 몰랐더라봐.”
 리가 대꾸를 앓자 아내는 거둑 덧거리를 했다.
 “초파일날 지달려 팽매기 치메 노는 것덜 치구 부처 위허는
 것 봤어? 헐 말 읊걸랑 윤 서방네서 텔러 오기 전에 여물술
 에 연탄이나 갈아 놓으.”
 리는 할 말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무뎠하니 지레 숙어들기도
 멍둥하여 부질없이 응수했다.
 “그러면, 빗구력에 처백헌 것덜이 갈망 읊이 ㉙ 텔레비나 본떠
 서, 애덜 앓혀 놓구 크릿스마쓰나 췌야야 애비 노릇 헌다는겨?”
 “빗구력에 백혔건 빗데미에 치엿건, 있네 읊네 해두 논 얼
 때 엇 고구, 밭 얼 때 술 담은 게 농촌 풍속인디…….”
 아내는 쉬어 가며 떠들었다.
 “㉚ 자기 입으루다 장 농군은 가을부자라고 책 읽듯 했잖어.
 봄내 허리띠 졸러매구, 여으내 허리 꼬부러졌다가 가을 한
 철 희떠운 소리 해 보구, 겨울에나 늘어 보는 게 농군이라
 메? 그때가 원젠디 헛바늘 슨 소리만 예사루 허?”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